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4. 1. 17.(수) 06:00 < 1.17.(수) 석간 > 배포 2024. 1. 16.(화)

통상교섭본부장, 취임 첫 현장행보로 산업공급망 현장방문

- 희토류 금속 생산업체 'KSM 메탈스' 방문,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과 경제안보 확보하는 통상전략 추진 각오 밝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취임 첫 행보로 희토류 금속 생산업체인 '케이에스엠 메탈스'(이하 KSM 메탈스)를 방문하고, 특정국 의존도를 낮추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경제안보 최전선을 수호하는 통상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호주 ASM사가 충북 오창에 투자·설립한 국내 첫 희토류 합금 생산업체인 KSM 메탈스는 희토류 수급처를 베트남 등으로 다변화하고, 수입 의존도가 높은 네오디뮴 합금의 국내 생산으로 희토류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다.

정인교 본부장은 "각 국이 경제안보를 강화하고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을 통해 희토류 금속의 원료 공급에서부터 최종 양산까지 자립적인 공급망 구축이 필요하다"며, 전기차 등에 필수적인 네오디뮴 금속을 생산하여 국내에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 온 KSM 메탈스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였다.

정인교 본부장은 "산업부가 경제안보 최전선에서 우리의 국익을 지켜내고, 경제활력을 뒷받침하는 산업정책과 연계된 통상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59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등 통상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통상중추국으로 자리매김하는 한편,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협정 등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겠다"고 언급했다.

산업부는 희토 영구자석을 「산업공급망 3050 전략('23.12.13)」의 '공급망 선도 8대 프로젝트' 중 하나로 지정하였으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협정 발효 시 핵심품목으로 포함하여 관심국가들과 공급망 안정화 방안 마련을 계획 중이다.

담당 부서	신통상전략지원관 신통상전략과	책임자	과 장	윤선영 (044-203-4870)
		담당자	사무관	유영신 (044-203-4876)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참고 **현장방문 개요**

□ 방문 개요

○ **일 시** : ‘24. 1. 17(수), 10:00~11:00 (60분)

○ **장 소** : KSM 메탈스 (충북 오창산업단지)

○ **주요 참석자**

- **(산업부)**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김진 신통상전략지원관, 윤선영 신통상전략과장
- **(충청북도)** 김명규 경제부지사, 조병철 투자유치과장 등
- **(기업)** KSM 메탈스 조성래 대표, KSM 테크놀로지 류홍열 대표
- **(유관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글로벌공급망 박동욱 실장,
  한국광해광업공단 광물자원본부 권순진 본부장

○ **주요 내용** : KSM 메탈스 생산현장 시찰 및 생산 근로자 격려

□ 세부일정(안)

시간		주요 내용	비고
10:00~11:00 (60’)	60’	**KSM 메탈스 방문**	
	(30’)	**❶ 기업 현황 브리핑 및 애로 청취**	본관 (2층 회의실)
	(30’)	**❷ 생산 현장 시찰** ▸ 생산 현장 참관 및 근로자 격려	공장동